



제목	수피즘 신의 유혹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발행일	2016. 12. 28.
저자	신은희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87
ISBN 또는 ISSN	978-8982225581

**내용 요약**

『수피즘 신의 유혹』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신은 고독하다. 그래서 신의 유혹은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수피를 “신을 아는 지식, ‘신지(theosophy)’를 지닌 자”로 개념 규정한다. 그리고 ‘신지’를 가진 자가 신과의 관계에서 ‘무아’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신성한 유혹에 초대 받은 이는 신의 사랑을 삶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과거 몇 년 동안 쓴 수피즘 주제 논문들을 엮어 『수피즘 신의 유혹』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어 놓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수피즘의 신인합일 사상과 독일의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와 루미의 신비 신학, 루미의 사랑, 루미와 샴스의 사랑 시, 수피즘의 세마예식, 가잘 시와 수피 상징, 와인· 에로스· 소멸 등의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신’이다.

제1장에서는 수피의 기원과 수피즘의 탄생, 수피즘의 신지론과 아름다운 소멸, 신을 향한 끝없는 정열, ‘신의 친구’ 등을 다루면서 ‘나는 신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제2장에서는 신과 연애하는 신비가, 신성한 유혹, 신을 완성하는 예언자들, 신과의 영원한 연애 등을 다루면서 에크하르트와 루미를 비교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루미의 시와 산문 『마스나위』, 수피 영성 등을, 제4장에서는 『타브리즈 샴스 시집』을 주로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세마예식의 기원과 역사, 메블레비 수피 종단, 세마예식의 회전춤 등을, 제6장에서는 가잘의 대가 하피즈를,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7장에서는 오마르하이얌의 『루바이야트』와 페르시아 전통 ‘와인’ 메타포 등을 주제화하였다.

『수피즘 신의 유혹』은 국내에서 출판된 몇 안 되는 루미 관련 학술적 결과물로서 루미를 한국에 소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이 “수피의 삶과 죽음을 추구했던 미완의 학술적 성찰들이다.”고 고백한다.